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법안 20일 처리 20대 국회 ‘유종의 미’

與野 첫 원내대표 회동

상생·협치에 공감대 형성
과거사 정리기본법 추가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20대 국회에 남겨진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한 가운데 이같은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여야 간 입장 차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이 폐기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날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 공식 회동한 가운데 ‘상생과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0대 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논의했고,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 날짜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의견을 교환하다가 통 크게 5월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미처리 법안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외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할

것”이라며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여러 법안들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기준 20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2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100여 건의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김부성 통합당 의원이 중재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형제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 의무’ 방안과 관련해 통합당이 난색을 보이면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과거사 기본법에서 (정부의 피해자) 배·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규정을 보면 지금 법 체계와 충돌한다. 이로 인해 현재 배·보상되는 게 4조7000억원인데, (피해자) 전체로 (배·보상하는 게 정부의) 의무가 되면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개별법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야는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위해 협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사법의 20대 국회 내 처리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과거사법 처리에 대해 통합당과) 협의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 역시 “과거사법도 배·보상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교육부, 일자리 잃은 강사에 강의기회 제공

대학 평생교육권 강좌개설 지원

정부가 대학 강사나 신진 연구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더 많이 갖도록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개설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강사법으로 일자리를 잃은 대학 강사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이 강사를 줄인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나 석·박사급 신진 연구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부설 평생교

육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에는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전문대학 가운데 4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대학은 새로 개설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강사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강의는 올해 2학기부터 개설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15일부터 6월5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평가에는 강사 고용 안정성, 평생교육 운영 계획, 강사 지원 계획 등이 반영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6월말 발표된다. 사업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

코로나로 학습능력 저하? 올 대입 ‘물수능’

잇따른 등교수업 연기 사태에
N수생-재학생 학습권 격차 심화
정부,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시사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물수능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등교 수업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올해 수능은 고3이 불리하고, 재수생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능 난이도를 ‘쉽게’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수능점수는 개인차가 있어서 집단별로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수능이 어려우면 졸업생이 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고, 수능이 쉬워질수록 격차가 좁혀져 재학생의 불리함이 줄어든다”라면서 “만약 올해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정시에서 졸업생 강제 현상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능 쉽게 출제되면 고3 재학생과 졸업생 격차 감소”

실제로 졸업생과 재학생의 표준점수 격차를 보면 이같은 맥락을 읽을 수 있다.

원점수 등급컷으로 수능 난이도의 추이를 알 수 있는데, 국어는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가 어렵게 출제됐고 수학과, 수학 나도 2019학년도가 비교적 어렵게 출제됐다. 세 영역 모두 2018학년도보다 2019학년도가 어려웠던 셈이다.

같은 기간 영역별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차이를 보면 국어는 2018학년도 11.9점, 2019학년도에는 12.5점으로 시험이 어려웠던 2019학년도에 졸



수능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

/뉴시스

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수학 가형은 2018학년도에 7.8점, 2019학년도에 9.4점으로 졸업생과 재학생 간 평균 차이를 나타냈으며, 수학 나형은 2018학년도에는 8.4점, 2019학년도에는 9.3점의 차이를 보였다. 즉, 수학 영역 역시 시험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해에 졸업생과 재학생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

◆최상위권은 난이도 따른 유·불리 없지만, 중상위권에는 ‘영향’

특히 수능 난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집단은 최상위권보다는 중위권 학생들이었다. 영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수능이 어려울 때 집단의 격차가 더 커졌다.

졸업생 비율이 2018학년도 23.2%에서 2019학년도에 22.8%로 0.4%p 감소한 상황에서 1등급 비율을 비교하면, 졸업생 비율이 ▲국어 42.1%→43.4%(1.3%p 증가) ▲수학 가 44.5%→42.6%(1.9%p 감소) ▲수학 나 44.9%→43.9%(1%p 감소) ▲영어 42.1%→41.6%(0.5%p 감소)로 나타났다. 즉, 국어는 증가, 수학과 영어는 감소했다.

반면, 2등급은 졸업생 비율이 ▲국어 39.9%→40.4%(0.5%p 증가) ▲수

학 가 34.2%→38.5%(4.3%p 증가) ▲수학 나 38.5%→38.4%(0.1%p 감소) ▲영어 33.5%→36.8%(3.3%p 증가)로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3등급에서는 ▲국어 35.2%→35.7%(0.5%p 증가) ▲수학 가 30.8%→32.9%(2.1%p 증가) ▲수학 나 30.3%→32.7%(2.4%p 증가) ▲영어 23.8%→29.0%(5.2%p 증가)로 모두 증가했다.

코로나 19 여파로 고3 수험생이 N수생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교육계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3 수험생의 학습권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수능 절대평가 영역 난이도 하향 조정’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능 난이도 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난이도 조정 등 기존 대학입시 관련 지난 발표에서 변한 것은 없다”면서 “재수생 중 중상, 중간층이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낮춰 쉽게 출제한다고 해서 꼭 고3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중소 10곳 중 6곳 구인난... “구직자 ‘눈높이’ 맞추기 어려워”

잡코리아 증기 649개사 채용 조사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구직자의 ‘눈높이’였다.

잡코리아가 국내 중소기업 649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관련 조사를 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6곳(63.3%)이 직원 채용에 어

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인사담당자들이 꼽은 직원 채용이 어려운 이유 1위는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35.8%)’였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면접 등 채용전형 진행이 어려워져서’라는 답변이 33.8%로 2위에 올랐다. 이외 ▲상대적으로 연봉수준이 낮아서(25.8%) ▲채용을 진행해도 뽑을 만한 인재가 없어서(25.8%) ▲직원 복지제도가 다양하

지 못해서(17.5%) 등도 직원 채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꼽혔다(*복수응답).

실제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49.2%는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직무 분야는 ▲생산/현장(34.2%) ▲판매/서비스(29.8%) ▲국내영업(16.0%) ▲마케팅(11.0%) 순이었다(*복수응답).

/이현진 기자

산기대 신소재공학과, 산업계관점 최우수 학과 선정

교육과정 설계·운영 최우수 등급

한국산업기술대 신소재공학과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9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신소재분야에서 최우수학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신소재, 미디어, 식품 등 3개 분야 학과가 설치된 62개 대학 88개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신소재분야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대학은



신소재분야 최우수학과 선정 /한국산업기술대

산기대 신소재공학과를 비롯한 전국 10개 대학이다.

산기대 신소재공학과는 3개의 평가 영역 중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설계와 산업계 기반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최종 최우수학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상패를 전달받은 산기대 신소재공학과는 2020년 연구비 수주실적에서도 연간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해 최우수학과 명색에 어울리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